네팔 불교, 연극에 빠지다

3월 27~30일, 제3회 불교연극제
부처님 생애 · 문학 작품서 각색도
팃낙한 스님 소설 연극화해 인기
"불교 미학 · 정신 담겨" 호평 이어

박영빈 객원기자


네팔에서 개최된 불교연극제의 모습. 사진출처=더 카트만두 포스트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인 네팔에서 불교를 주제로 하는 연극제가 개최됐다. 이번으로 벌써 3회차를 맞는 네팔 불교 연극제를 통해 네팔 연극인들 사이에서 불교의 스토리텔링이 인기를 끌고 있다. 4월 8일, 네팔의 '더 카트만두 포스트'는 불교 연극제의 내막을 상세히 보도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다발리 극장에서는 연극감독이자 배우인 푸스카르 구룽 감독의 지도아래 제3회 '불교 연극제'가 개최됐다. 불교설화를 각색하거나, 불교적인 모티프를 주제로 한 극들이 상연됐고 불교희극에 대한 학술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연극제에서 상연된 연극들은 주로 부처님의 생애 속에 등장하는 설화들에서 가져오거나, 불교를 주제로 한 다른 문학 작품들을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들이다. 특히 올해는 유녀 암바팔리의 설화나, 틱낫한 스님의 단편 소설인 〈옛길, 흰 구름〉 등이 연극화 됐다.

연극제를 이끈 구룽 감독은 "불교 연극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다. 연극인들은 각자 그들이 가진 불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 공연에 결합하는 실험을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며 연극제에 더욱 다양한 주제와 해석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연극제에서 '마야부인의 꿈'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상연하고 직접 연기한 극작가 아비 수베디는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 이야기 속에 네팔의 근현대사를 담아내고자 시도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이야기와은 미장센은 불교지만 실제 관람객들의 눈에는 연극에 등장하는 마오주의 게릴라, 테러, 가난 등의 우리가 겪어온 이야기들이 먼저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비는 "연극과 공연을 예로 들어 우리 삶속에 불교의 정신을 보이고 싶었다. 반드시 불교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 불교의 미학과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불교 희곡이라고 생각한다"며 불교 연극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연극제 마지막 날 진행된 학술 세미나에선 현재 공연되고 있는 불교 희곡에 있어서 부처님의 생애라는 테마의 한계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주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자비와 평화가 중심적으로 다뤄졌고, 환경이나 정치와 같은 주제도 함께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특히 저명한 티베트학 학자인 푼야 파라줄리 박사는 현재 티베트 전통희곡에서 티베트로 시집간 네팔의 공주 브리쿠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설명하며, 연극을 통해 불교적인 내용과 정치적인 내용이 함께 주제로 다뤄 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더 카트만두 포스트는 아비 수베디의 말을 인용하며 "네팔 연극인들의 불교에 대한 애정은 불교의 미학과 실용주의적이고 중도적인 가르침에서 비롯한다. 특히 불교문헌들의 다양한 비유화 설화는 연극인들에게 영감의 보고와 같다"고 설명했다. 연극제를 이끈 구룽감독은 "장래 이 연극제를 법인화하여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진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300년 된 불상, 도난 하루 만에 제자리

"불상 때문에 재난 생겼다"며
용의자, 정신착란 증세 보여



도난당했던 빈두로 존자상이 모셔져있던 불단. 사진출처=제로 테레 뉴스 화면 캡쳐.

황당한 이유로 일본에서 도난당한 불상이 다행히 하루 만에 원래의 사찰로 돌아왔다. 지난 4월 6일, 일본의 '제로 테레 뉴스' 등의 현지 언론들은 나가노(長野)시의 젠코지(善光寺)에서 도난당한 '빈두로존자상(賓頭盧尊者像)'의 환수 경위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5일 오전, 미타성지로 유명한 일본의 고찰 젠코지의 본당에 봉안되어 있던 빈두로존자상이 도난당했다. 도난 직후 사찰의 발 빠른 신고로 익일 오전, 시내에서 용의자인 모리모토 신타로를 체포하고 불상을 환수했다. 불상은 사찰측의 요청으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6일 낮 무렵 사찰에 다시 반환됐다.

젠코지 측은 "용의자는 5일 오전 6시 아침예불 무렵 본당을 참배했다. 당시 본당을 지키는 종무원에게 '이 불상이 있기에 재난이 일어난다'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8시경 참배자가 드문 시간에 용의자는 빈두로존자상을 안고 나왔다. 빈두로존자상은 종파를 따지지 않고 일본의 사찰에 흔히 모셔지는 나한상으로, 직접 불상을 만져 기원하는 풍습이 있어 불특정한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기에 도난에 취약했다.

나가노 경찰 측은 "모리모토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왜 훔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불상에 원한이 있다. 그 불상이 있으면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난다. 땅에 파묻으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용의자의 모친은 "1년 전 퇴사하고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불교나 종교적인 부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선 "어째서 불상을 훔쳤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일주일 전에 나가노에 간다고서는 집을 나간 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전해했다. 실제 용의자는 젠코지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젠코지 측은 "빈두로존자상은 예로부터 만져서 기원하는 부분의 병고가 사라진다고 알려진 불상이다. 그런 불상 때문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불상은 300년 이상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돌보아온 불상"이라며 용의자의 진술과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사찰 측은 당분간 빈두로존자상을 본당의 원래 자리에 봉안하지 않고, 경비체제를 검토 후 재봉안 할 방침이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상세한 동기와 범행 경위를 조사 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캄보디아 불교 사원 건립 '청신호'

산호세 시의회 만장일치로
"단순 종교 아닌 삶의 방식"


산호세 시 의회에서 사원 건설을 두고 토론하고 있다. 사진출처=산호세 스포트라이트

지난 3월 31일 미국의 'ABC뉴스',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산호세 캄보디아 사원 건립 승인 소식을 전했다.

산호세 시의회는 지난주 캄보디아 공동체의 불교 사원 건설을 승인했다. 캄보디아 승려 1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의 결정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에버그린 지역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소음 발생 우려해 사원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사원은 건설 승인을 얻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고 건설 계획을 공유하며 수년간 노력해왔다.

승인 소식에 크메르 불교 재단의 리나 람은 "캄보디아 공동체를 위한 순수한 기쁨이다. 사원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가 아닌 삶의 방식이다"이라고 말했다.

사원 건립 지역을 대표하는 '도밍고 칸델라스' 시의원은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약 40개의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규 운영 시간을 정하고 대규모 행사에 대한 교통 통제와 보안 조치를 해야한다. 시의원은 "4년간의 작업, 투입, 프로젝트 변화, 커뮤니티 토론을 거쳐 이제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할 때"라면서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킬링필드의 비극을 겪은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사원은 에버그린에 1300평방미터(약 400평)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완공 시 인근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해안 대도시권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커뮤니티 센터와 캄보디아 공동체를 위한 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두올 손 스님은 "사원이라고 부르지만 캄보디아 난민에게는 하나의 집"이라면서 "캄보디아 불자들에게 제공할 더 많은 공간과 스님들이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사원이 필요했다"며 "성스러운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관습과 문화, 언어 교육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나 람은 "기존 캄보디아 사원의 거주 인원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대규모 모임을 위한 충분한 예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사원은 우리의 종교를 보존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하기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사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국불교문화협회, 6층 규모 사원 착공

환경 친화 방법으로 건립
2024년 말 개관 목표로


삼보사 투시도 사진출처=SOM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미국불교문화협회가 6층 규모의 사원 착공을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미국불교문화협회 사원 착공 소식을 전했다.

미국불교문화협회(ABCS)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과 차이나타운 사이에 있는 반 네스가에 6층짜리 사원 착공을 발표했다.

370평에 달하는 사원 건축지는 1989년부터 ABCS가 대만 불광산사의 말사인 삼보사와 함께 사원과 서점을 운영했고 지역 불교계의 중심지였다. 현재 단층 시설을 현대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문화센터로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원은 2024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에는 법당, 명상실, 행정실, 공양시설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숙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물 중앙에는 공공미술관, 서점, 찻집, 주민 센터 등 부대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불교문화협회의 후이 지 스님은 "사원 건립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부처님 법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계와 건축을 맡은 SOM사는 "사원 디자인에 불교의 근본인 하심과 이웃에 대한 자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름다움을 담았다"면서 "사원 전면은 전통적인 불교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전통적인 사찰 지붕의 넓은 처마를 재현하고 입구에는 삼문(三門)의 요소를 가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쁜 도시 환경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있는 조용한 휴식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내부 공간을 구성했다"며 "수수한 자연의 재료인 인디애나 석회암과 천연 목재를 중심으로 빛의 시학을 더해 감각적인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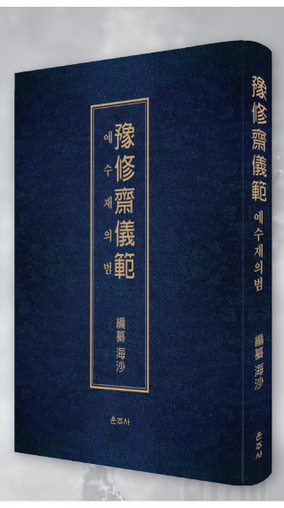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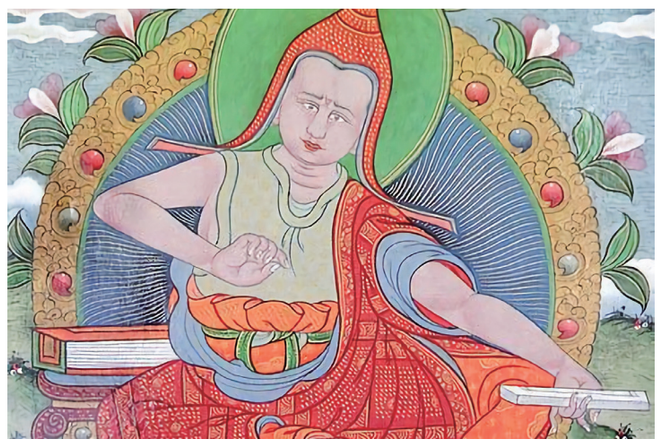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